금융위기 재발 할까, 단기 충격에 그칠까

■ 두바이 쇼크,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장

직접 손실은 미미… 투자심리 악화 될 듯

두바이발 쇼크로 지난 27일 국내 금융시장이 휘청거리면서 이번 두바이 악재가 우리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바이가 채무상환 유예 신청을 한 첫날보다 오히려 둘째 날에 국내 금융시장이 더 큰 영향을 받은 만큼 시간이 지나면서 파급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직접적 투자손실은 물론이고 유럽 금융시장 충격 등 간접적인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아 일부에서 우려하는 대로 제2의 글로벌 위기에 견주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는 지적이다.

두바이의 경제규모상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낙관하지만 투자국들의 일시적인 자금경색이 글로벌 시장 전체의 불안정성을 높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직접 손실 미미, 간접 영향이 관건**=우리 건설업체나 금융기관들이 두바이에 투자하거나 사업에 참여한 규모는 두바이 전체로 봐서 8천800만 달러. 두바이를 포함한 아랍에미리트(UAE)는 2억2천100만 달러다. 이번에 문제가 된 두바이 월드에 대한 것만 보면 3천200만 달러다.

우리나라가 전세계에 갖고 있는 익스포저(채권)는 528억 달러 수준으로 두바이 쇼크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 되지 않는다. 익스포저는 대출금·유가증권·지급보증 등을 모두 합한 개념이다. 이 때문에 두바이발 악재가 터진 전날 우리 증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우려되는 것은 간접충격 부분이다. 두바이에 투자한 국가들이 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자금경색이 일어나면 쪼들리는 자금을 해결하기 위해 급히 처분할 수 있는 자산을 팔게 되고 이 경우 취약한 구조를 가진 국가의 시장이 타격을 받아 금융위기 때와 유사한 상황이 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두바이의 채무상환 유예신청 하루 뒤 유럽 금융기관들이 두바이에 대한 투자가 많아 손실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이로 인해 유럽 증시가 폭락하면서 국내 금융시장에도 한파가 몰아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증시가 다음날 1%이상 반등했고 두바이 사태이후 처음으로 열린 미국 증시도 1%대의 하락에 그쳐 두바이 쇼크가 글로벌 경제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여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장도 생각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도 두바이월드의 채무상환 유예 사태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을 실시간 점검하고 필요한 대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단기충격에 그치지만 투자심리는 악화 될 듯**=전문가들은 두바이 쇼크가 단기충격에 그칠 것이지만 투자심리는 당분간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단기충격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이유는 두바이월드의 채무 상환 유예요청을 채권단이 외면하기 힘들다는데 있다. 아부다비 상업은행 등 아랍에미리트 금융기관들로 구성된 채권단이 자국 보호를 위해서라도 유예요청을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 유정석 수석연구원은 "투자자들이 이번 사태의 불확실성 때문에 동요를 많이 한 것 같다"면서 "규모 면에서 아이슬란드나 동유럽 사태와 비교해 미미한 수준으로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은 단기적으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투자심리는 당분간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대경제연구원 유병규 경제연구본부장은 "이번 쇼크가 다른 국가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각국 재정정책의 효력이 떨어지면서 잠재돼 있던 요인이 불거져 나와 진통이 나타나는 것 같다. 성급한 출구전략을 시행할 경우 상황이 나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권혁세 금융위 부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위 회의실에서 두바이월드 채무상환 유예 요청과 관련해 열린 금융위-금감원 합동 비상금융대책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질병보험료 내일부터 최대 30% 인상

내일부터 생명보험 질병보험료가 최대 30% 인상되고 연금보험 수령액은 10% 안팎 축소된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생명보험사들은 제6회 경험생명표를 도입하면서 이달 초부터 질병보험과 정기보험, 종신보험 보험료를 조정하고 이달 말부터는 연금보험을 손볼 예정이다.

보험 종류별로는 암 보험 등 질병보험의 보험료 인상 폭이 큰 편이다.

금호생명이 다음달 초에 20~30% 인상을 계획하고 있고 알리안츠 생명도 2~14%, 대한생명은 5%, 교보생명은 1~2% 올리며 동양생명은 월말에 1~11% 인상할 예정이다. 흥국생명은 이달에 4.8~14.7%를 올렸고 AIA생명은 지난 10월 40% 인상한 바 있다.

연금보험은 삼성생명이 다음달 말부터 수령액을 10% 가량 축소할 계획이다. 같은 금액을 내더라도 받는 돈이 10% 줄어드는 것이다.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은 대부분 보험료를 인하하지만, 일부 올리는 곳도 있다.

삼성생명은 정기보험은 12월 3일부터 최고 8% 내릴 계획이다. CI보험 등이 포함된 생사혼합보험은 다음달 23일부터 -2~2% 조정하며 종신보험은 지난 24일부터 3%까지 내렸다.

대한생명은 다음달 초에 정기보험 보험료를 5% 인상하고 교보생명은 정기보험과 종신보험 모두 1~2% 올린다.

/연합뉴스

■ 주간 증시 포커스

두바이 쇼크 비관은 금물

경기동향 관찰 필요할 때

두바이월드의 모라토리움 선언이 지난 주말 글로벌 증시를 강타했다. 두바이월드의 모라토리움에 따른 국내 건설업체들의 직접적인 피해가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27일 코스피지수가 5% 가까운 급락세를 기록한 것도 시장이 이번 사태를 개별 업종 리스크가 아닌 마켓 리스크로 걱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두바이월드는 두바이 정부가 보유한 국영투자업체라는 점에서 곧 두바이의 모라토리움으로 해석되기도 하며, 여기에 투자한 각국의 금융투자 규모가 적지 않다는 점도 어느 정도 진정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글로벌 금융위기의 재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번 사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과 두 달여 전에 있었던 프랑스 해운업체인 CMA CGM의 모라토리움을 연상케한다. 당시 세계 3위의 해운업체가 전격적으로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것에 대해서 시장은 크게 놀랐지만, 글로벌 경기침체의 파문 속에 해운업체가 겪고 있었던 어려움은 이미 시장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결국 앓던 종기가 터져버린 셈이었다. 오히려 CMA CGM의 모라토리움 선언 직후부터 벌크선 운임지수인 BDI는 100% 가까이 급등해 4,000포인트를 넘어섰고, 컨테이너 운임지수 또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업종이 해운업에서 건설업으로, 그리고 국가가 프랑스에서 두바이로 달라졌을 뿐, 장기간 겪어왔던 어려움이 결국 파문에 이르렀다는 것이 본질이라면 두 사례의 유사성 또한 적지 않아 보인다. 또한 CMA CGM사의 모라토리움 이후 프랑스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면서 파문이 조기에 수습될 수 있었던 점이나, 두바이월드의 모라토리움에 대해서 아부다비의 지원이 예상된다는 점도 공통되는 부분이겠다

물론 두바이월드의 모라토리움에 따른 파문이 향후 얼마나 확대될지에 대해서는 섣부른 예단은 금물이다. 시장의 우려가 분명히 존재하고, 초기의 반응도 무척이나 격했기에 조심스러운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나 연계된 자금규모가 제한적이고, 금융위기와 같은 파생상품의 도미노식 부실 확대 가능성도 없다는 점에서 과도한 비관론도 경계한다.

이번 두바이 사태의 파장이 크기는 하지만 그간 진행되었던 글로벌 경기회복세가 완전히 무의미해져버린 것은 아니다. 미국의 연말 소비경기 등 전반적인 경기동향에 대한 면밀한 관찰을 유지할 필요가 있겠다. 이와 더불어 급격한 원화환율 및 원·엔 재정환율의 상승으로 형성되고 있는 틈새시장에 대한 관심 역시 유효하다는 판단이다.

박 종 모

〈신한금융투자 광주지점장〉